

## 요한복음 4<sup>o</sup> 내 말들을 지키라: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요14:21-24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 19,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제 1년이 지나갔다. 송구영신에서 이야기한 대로 코로나 19는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2021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는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머리에 두고 슬픔과 고통을 헤치며 나가서 결국 연말에는 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새해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설정한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실 나는 매해 교회 목표, 인원, 헌금 목표 등을 세우지 않는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재정 팀이 모여서 예산을 세운 적도 없다. 그냥 주어진 실정에 맞게 운영해 왔다.

2021년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다.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다만 한 가지 계획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2021년 상반기에는 지난 6년 동안 교정한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마제스티 판을 출간하려고 한다.

2000년 8월에 초판이 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며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미약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성경, 바른 성경을 읽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했다.

2021년부터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킹제임스 성경 마제스티 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40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한다. < >, 21절 명령들을 지키라, 23절 말들을 지키라는 명령의 의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여기에 우리의 서고 쓰러짐이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한 해

### 배경

3년 반 공생애를 마감함,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발을 씻겨 주심, 나는 간다. 베드로도 부인한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2.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3.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겠다. 내주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진리의 영

그리고는 떠나시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하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받는 복을 말씀하신다.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이것은 15절의 반복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한다.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킨다.

그 명령들이 귀에, 입에, 머릿속에 잇을 수 있지만 지키지는 못할 수 있다.

알고,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키지는 못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명령들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21).

즉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22절: 다른 유다의 질문,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21절의 나타내다를 보이다로 잘못 이해함, 아직도 메시아 왕국의 꿈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좀 나타내소서. 십자가 등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름

경영 원칙이 바뀐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23절: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내 말들을 지키는 것, 즉 내 명령들이 내 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 아버지의 사랑, 우리(아버지와 아들)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한다. 즉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한다. 같은 거처에서. 그리고 성령님은 16절에서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24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증거, 내 말들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복이 없다.

마지막 썬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일단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근심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주신다.

“나를 사랑하라.” 믿는 성도들의 열망: 구원받으면 주님 사랑,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내 명령들은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 그 명령들은 내 말들이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그분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시작 부분을 보라. 마4, 마귀의 시험

마귀의 첫 번째 시험(마4:3)

주님의 대답 마4:4

일단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단어가 있어야 한다.

설교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올리브산 설교(마24:35)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 내 말들을 소유하고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하나님의 여러 속성,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하신다.

딤후3:16을 보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영감 inspiration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 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말씀이다(히4:12).

렘23:29, {주} 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런데 숨이 들어 있는 말씀이 역사를 거치면서 소실되어 우리 손에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내 말들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유효하려면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보존해 주셔야 한다.

성경은 66개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 성경으로 구분된다. 성경은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02절(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788,258개 영어 단어(구약 609,247개, 신약 179,011개)로 구성되어 있다.

히브리어(42만 개), 그리스어(14만 개), 영어, 우리말 : 총 백만 개 이하의 단어

많은 인본주의자 학자들의 견해: 하나님은 100만 개 이하의 단어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역사의 중간에 여러 단어들 소실되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 소실된 단어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네슬레 알란드 판은 1898년 초판 발행 후 지금까지 28번이나 변경되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에서 유로 온 우주 공간 창조, 셀 수 없는 규모의 별들을 만드신다.

그리고 그 별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다(시147:4). 그분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데다.

지금까지 인류: 수백 억 인구, 모두 이름으로 부르신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100만 개 이하의 단어, 그것도 자신의 숨이 담겨 있는 단어들을 보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 몸이 죽는다. 썩는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수많은 성도들 사자들의 밥, 바다에서 죽고 산에서 죽고 강에서 죽고 거리에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 모든 사람들의 몸이 부활한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분해된 분자, 원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수천 만 명의 사람들이 휴거받는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람들만 받는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100만 개 이하의 단어들을 보존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배치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내 말들을 소유하고 지켜야 한다. 우리가 성경 신자라고 말하려면 먼저 성경 말씀의 보존을 믿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존된 말씀들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다.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칼빈 올리베땅의 올리베땅 프랑스어 성경, 디오다티의 이탈리아어 성경, 레이나 발레이의 스페인어 성경, 틸데일, 제네바 성경 다 보존된 다수 사본들에서 번역된 올바른 성경, 이것이 1611년에 최종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정점을 찍음

지난 400년 이상 전 세계 모든 신학교, 교회, 주석서, 세계 선교,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음 우리나라에도 서천 성경 박물관(1816), 킹제임스 성경, 일본에서 나온 이수정역(1884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성경(1885년),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영어 옥스퍼드 사전에 The Holy Bible로 등재된 성경

바른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도 없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귀가 딱 맞는다.

1. 마1:25
2. 약5:16
3. 행8:37
4. 뵤전2:2
5. 빌2:12
6. 요일5:6-7
7. 막9:44, 46

자그마치 그리스말로 하면 7%, 변경, 베드로전후서 분량만큼 삭제됨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고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다. 맛 본 자들이 안다.

개역성경은 귀한 성경이다. 우리 중 대다수가 그 성경으로 구원받았다.

### 결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아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령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기 원한다. 말 그대로 바이블 벨리버가 되기 원한다. 이 일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있어야 한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들어 있는 성경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이후에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

우리 교회 설립의 목적: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을 알리고 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게 하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시12:6-7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란다.

말씀 보존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란다. 하나님은 100만 개 이하의 단어들을 보존하실 수 있다.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개인, 교회, 국가가 설 수 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초이다.

설교, 교리, 교육,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 사역에 올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를 의지하며 승리할 것이다.